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규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이
비행청소년의 대인관계, 우울, 자기
통제에 미치는 영향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허 경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이
비행청소년의 대인관계, 우울, 자기
통제에 미치는 영향

김 정 규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허 경

인 준 서

허 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 조 영일 (인)

심사위원 이 정윤 (인)

심사위원 김 정규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을 실시하고, 본 치료 프로그램이 대상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 향상과 우울의 감소 및 자아통제력 증진에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의 보호관찰 수탁기관에 수용 중인 여자 비행청소년 16명이며, 이들을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각각 8명씩 무선할당 하였다. 치료집단은 본 치료프로그램을 5주 동안, 주 2회 총 10회기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은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 검사 단축형(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 KIIP- SC), 역학 연구센터의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CES-D) 한국어판과 자기통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 실시 이후, 치료집단의 대인관계 문제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자아통제력 수준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프로그램의 지속적 효과를 평가하고자 4주 후 추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 문제와 우울, 자아통제력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이 비행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의 향상, 우울 감소, 자아통제력 증진에 도움을 주어, 그들의 재비행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비행청소년,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 대인관계, 우울, 자기통제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문제 5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비행의 개념 7
2. 청소년 비행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11
3. 비행 청소년과 대인관계 14
4. 비행 청소년과 우울 16
5. 비행 청소년과 자기통제력 18
6. 계슈탈트 심리치료와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 21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27
2. 연구 절차 27
3. 치료프로그램의 목적 및 개발방향 28
4. 집단 발달 단계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29
5. 우울 감소,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통제력 증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내용 35

6. 연구 설계	39
7. 측정 도구	39
8. 자료 분석	42

IV. 연구결과

1.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44
2. 프로그램 효과 평가	44

V. 논의 및 제언

1. 연구결과 및 논의	52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55

참고문헌

ABSTRACT

부록(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설문지)

표 목 차

표 1. 현행 소년법에서의 소년범의 분류	9
표 2. 보호처분 단계	10
표 3.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방지를 위한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 · 34	
표 4. 연구 설계 모형	39
표 5.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단축형의 문항구성	40
표 6. 치료 전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44
표 7.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가시기에 따른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45
표 8. 대인관계문제 변량분석 결과	46
표 9.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인관계문제 사전-사후, 사전-추후 검정 ...	47
표 10. 우울 변량분석 결과	48
표 11.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우울 사전-사후, 사전-추후 검정	49
표 12. 자기통제 변량분석 결과	50
표 13.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통제 사전-사후, 사전-추후 검정	51

그림 목 차

<그림 1> 두 집단 간 측정시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의 추이	46
<그림 2> 두 집단 간 측정시점에 따른 우울의 추이	48
<그림 3> 두 집단 간 측정시점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추이	5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 문제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2011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학교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전국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응답자 15,954명 중 총 6.7%에 이른다(여성가족부, 2012). 2012년 소년범의 발생은 전년에 비해 20.7%가 증가하여 104,532명을 기록하였다. 전체 범죄자에 대한 소년범의 비율 또한 전년 대비 4.8%에서 6.1%로 크게 증가하였다(경찰청, 2013). 최근 청소년범죄는 매년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범죄 유형도 지능화, 폭력화, 집단화,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중산층 출신의 비행 증가와 동기 없는 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도 전과가 있는 소년범의 비율은 2008년 7.1%에서 13.6%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바, 이는 소년범죄의 상습화 가능성을 시사한다(청소년백서, 201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의 계도를 위한 시설 및 제도로써 소년일시보호소(분류심사원)와 소년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년 사법제도의 근본취지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처벌하는 대신 개선과 교육을 통하여 범죄자로서의 낙인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지향하는 데 있다. 즉 비행 청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비행청소년의 사회 환원을 돕기 위해 국가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처우로서 소년법 내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 재적응을 돕고 있다.

특히, 소년법 처벌 중 하나인 6호 처분은 앞서 언급한 보호법의 취지를 잘 반영한 법적 처분으로 알려져 있다. 6호 처분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소년원으로 송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기타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다. 보호처분을 받고 위탁시설에 맡겨진 청소년들은 가정을 대신해서 시설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므로 소년법의 개정된 취지와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무색하게 위탁 시설의 교정 프로그램은 국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운영되거나 외부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어 효과적인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최옥채, 2003). 이러한 이유로 위탁 시설 청소년들의 정서와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어주기에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비행 청소년들이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비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이들 프로그램의 교정, 교화의 효과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희은, 2001, 최세아, 2015). 청소년 비행은 성인범죄자에 비해 행동교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처우방법 및 교정활동 등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비행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허경미, 2008). 따라서 비행청소년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일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재비행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문영숙, 2012).

비행 청소년들은 대부분 빈약한 가정환경에 처해있거나 학교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등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여 정서상의 문제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된 정서 특성으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충동성, 공격성, 우울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진혜민, 배성우, 2012). 이 가운데 특히 청소년기의 우울은 비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정서변인으로서, 비행과 공존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변인보다 상대적으로 비행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경주, 2004). 이는 청소년이 자신의 우울한 감

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행동을 하는 경우가 흔하고(최선남, 1995), 우울이 비행으로 표출될 수 있음(심혜원, 1999)을 시사한다.

실증 연구에서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실제로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한 청소년의 30%가 행동장애를 보이고, 비행 집단 중 25%가 우울을 동반한다는 결과(Kovacs & Gatsonis, 1989; 김지혜, 2013 재인용)를 미루어볼 때 우울과 반사회적 행동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의 우울 증상은 슬픔, 낙심 등의 성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우울 증상의 형태가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의 다른 증후군으로 나타난다(김윤정, 1999). 왜냐하면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우울한 기분을 잘 지각하지 못하거나, 지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감정을 직접 호소하기보다는 공격적인 행동과 같은 형태로 표현(Conger & Peterson, 1984)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울은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예언하는 주요요인 중 하나이다.

한편 비행청소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심리적 특성들은 이들의 비행행동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비행청소년들은 특히 대인관계적 측면에 있어서 타인을 공격적으로 대하고, 자신을 통제한다거나 남의 허락을 구하는 등 친사회적 행동에는 능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청소년 백서, 2005). 또한 자기통제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충동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쉽게 폭력이나 약물남용 등의 비행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비행청소년들의 '대인관계 문제'와 부족한 '자기통제력 문제'는 비행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비행청소년의 조화로운 인격형성과 정서순화를 위한 교육적·치료적 프로그램으로써 개인상담, 집단상담, 작업 치료적 접근방법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김희은, 2002). 예를 들자면,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을 위한 프로그램(임소영, 2000; 강미량, 2009; 이정선, 2010), 인지행동치료와 웃음치료(류창현, 2010), 인문학 프로그램(이영민, 2013), 현실치료를 적용한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박은정, 2012)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구, 개발,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상가의 역할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술한 프로그램 대부분은 비행청소년의 인지 및 행동 수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연스러운 자기표현 및 감정의 발산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임은정, 2002).

대인관계에서 자기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비행청소년의 특성(강신덕, 1997)을 고려할 때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의 원인이 되는 우울 정서를 경감시키는 한편, 대인관계기술훈련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며, 자신의 정서 알아차림과 감정 표현 등의 작업을 통해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에 수용되어 비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하게 되는 비행 청소년들의 경우,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인지 행동 교정에 초점을 둔 인지-행동주의적 접근보다는 게슈탈트 치료와 같이 내담자-상담자 간의 동등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지금,여기의 정서를 다루어 주는 개입이 궁극적으로 비행청소년의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슈탈트 심리치료는 개인의 감각, 감정, 행동, 생각과 같은 현상에 대한 알아차림과 접촉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치료 장면에서 대인 간 공감적인 만남을 지향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회복을 시도하는 심리치료이다.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이하 (GRIP)은 게슈탈트 심리치료 이론을 기반으로 예술치료와 미술치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와 놀이 활동을 접목시킨 다목적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다(김정규, 2010). 대인관계에서의 접촉과 연결성을 중시하며, 개인의 인지와 정서 그리고 행동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 정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줌으로써 인지와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정서-중심적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다. 이렇듯 그립(GRIP)의 ‘정서 중심적 특성’과 ‘관계 중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본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의 우울한 정서 감소 및 대인관계능력, 자기통제력 향상에 초점을 둔 본 연구목적에 상당히 적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여러 선행 연구들은 그립(GRIP)이 우울과 대인관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립(GRIP)은 중학생의 우울과 대인관계에 효과가 있으며(민현정, 2003; 이지현, 2009; 김효림, 2014), 독거노인의 우울과 자아통합감에 효과가 있었고(석미란, 2011), 도시 빈곤 여성의 우울감소에도 효과가 있었다(장경혜, 2004).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자각하고 표현을 돕는 그립(GRIP)은 비행청소년의 관계 문제와 우울한 정서 조절을 통해 낮은 자기통제를 높여 주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립(GRIP)은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다른 접근법들과 더불어 의미 있는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정기관의 프로그램 구성에 도움을 주고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슈탈트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행청소년의 우울 감소 및 대인관계능력, 자기통제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우울 감소, 대인관계 능력 및 자기통제력 향상에 초점을 둔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에 참여한 비행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 수준은 통제집단에 비해 감소할 것인가?

가설 1.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에 참여한 비행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 수준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이다.

【연구문제 2】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에 참여한 비행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통제집단에 비해 감소할 것인가?

가설 2.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에 참여한 비행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이다.

【연구문제 3】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에 참여한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 수준은 통제집단에 비해 증가할 것인가?

가설 3.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에 참여한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 수준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이다.

【연구문제 4】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에 참여한 비행청소년의 치료¹⁾효과는 지속될 것인가?

가설 4.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에 참여한 비행청소년의 치료효과는 지속될 것이다.

1) 치료(Therapy)는 의사가 행하는 의술(medical treatment)과 구분되어지는 개념으로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부조화에서 조화로운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증상의 완화 내지는 행동의 수정 및 변화를 말하며, 일반의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치료라는 용어는 심리치료, 행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 및 재비행과 관련하여, '치료'란 개념은 원칙적으로 비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적응 행동이나 정신적인 손상의 완화를 말하며, 그들의 개인적 상황에 적합한 문제 해결 활동을 말한다(이선영, 2009).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비행의 개념

청소년 비행에 대한 정의는 각 시대와 사회, 관습과 문화,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왔으므로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양종국(2002)은 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 바 있다. 좁은 의미의 비행은 실정법상의 개념으로 청소년 범죄를 말하고, 넓은 의미의 비행은 비상식적이고 보통이 아닌 행위로서 비난을 받을 정도의 행위를 말하며, 사회규범으로부터의 일탈행위를 말한다(양종국, 2002). 법리적인 측면에서 비행을 보았을 때, ‘비행’은 주로 청소년들에게만 적용되고 성인의 경우에는 범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김경식, 이현철, 2008).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행동은 다음 세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는데, 첫째, 사회 문화 속에 내재된 가치 규범에 의해서 전적으로 수용 될 수 있거나 적어도 특정 상황에서 수용될 수 있는 행동 질서, 둘째, 독특하거나 특별한 행동이긴 하지만 무질서를 초래하지 않는 행동, 셋째, 일탈의 정도가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이나 혐오감, 분노 혹은 복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여기서 비행이란 세 번째 유형의 일탈과 관련되어 있다(서민경, 2010). 일탈행동이란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말한다. 즉, 가치합의에 의한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 즉 규범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모든 행동을 일탈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준호 외, 2013).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이 그 사회에서 모종으로 합의된 규범을 벗어난 행동 일련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단순 가출, 흡연 등의 일탈행위와 더불어 범법 행위 등의 일반적 일탈 행동을 폭넓게 포함하는 것이다. 비행청소년은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연령층에 있는 소년에 의한 범법

행위, 혹은 그 연령층에는 허용되지 않는 규범위반행위를 한 청소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비행은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소년범죄보다 포괄적 의미를 가진다. 사회학적 의미에서 청소년 비행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 행위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에 의해서 범해지는 형법을 위반하는 중한 범죄행위들이다. 이러한 행위는 성인들이 범해도 기소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서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의 강력범죄와 주거침입, 절도 등과 같은 일부의 재산범죄가 포함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한 비행으로서 빈도 상으로 볼 때 중한 범죄보다는 좀 더 많이 나타나는 형법 위반 행위이다. 이러한 유형에는 사소한 절도, 폭행, 기타 법위반 행위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를 한 청소년들은 거의 체포되지 않으며, 경찰에 의해서 체포된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한 범죄의 상당 부분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된다. 세 번째 유형은 청소년 지위비행이다. 이는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위반 행위로서, 성인이 했을 때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청소년이 했을 때에는 바로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지위비행이다. 예를 들어 음주, 흡연, 음란물 접촉, 사소한 싸움, 부모에 대한 반항, 가출 등은 범죄라고 볼 정도로 심각한 일탈행동은 아니지만 그러한 행동을 한 행위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일탈행동으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비행은 소년범죄뿐만 아니라 사회학에서 의미하는 경미한 비행과 지위비행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인 범죄는 물론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 벗어난 일탈행동도 청소년비행으로 규정할 수 있다(김준호 외, 2013).

범죄는 행위자보다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되는 반면, 청소년비행은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동으로 행위자를 중심으로 규정된다. 기

존 소년법은 12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소년비행이 저연령화, 심각화 되어 가는 추세를 반영하여 2007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개정되었다. 개정 소년법은 개입이 필요한 비행소년을 다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첫째, 범죄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둘째,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자로 형사법령을 위반했으나 형사책임이 없는 청소년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우범소년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분을 할 수 없고,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셋째,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자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한 경우 또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보호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아직 형사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장래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를 하게 되면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비행청소년이 되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김준호, 이동원, 1996). 우범소년은 현재적 행위보다는 잠재적인 행위에 더 중점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법에 의한 소년법의 분류는 <표1>과 같다.

<표 1> 현행 소년법에서의 소년법의 분류

유형	해당연령	형사책임여부	형사법령 위반여부	가능한 처분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	없음	위반 안함	보호처분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없음	위반	보호처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있음	위반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

현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10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상호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단계별 내용은 <표 2>와 같다. 1호부터 5호까지는 보호자와 지역 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되는 ‘사회 내 처우’이며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에 수용되는 ‘시설 내 처우’이다. 6호와 7호는 그 중간 단계로서 각각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 보호시설 또는 병원, 요양소 등의 시설에 위탁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 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며,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비행의 원인이 되는 가정과 사회 환경에 개입하고자 하는데 있다(박은미, 2012).

<표 2> 보호처분 단계

처벌단계 (호 처분)	내용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2	수감명령(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4	단기 보호관찰
5	장기 보호관찰
6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	의료보호시설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0	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12세 이상)

본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을 ‘소년법 제 4조에 의거하여, 형법법령 특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은 14~19세의 병합 받은 처분 중 6호 처분인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중인 자’로 정의하고,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려고 한다.

2. 청소년 비행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고 완화하는 요인들을 평가하여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비행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내용이다.

1) 위험 요인

위험요인이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 환경이나 개인적인 특성 중 발달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을 말한다(양종국, 2002). 청소년들이 발달단계상 문제 행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위험요인은 개인, 가정, 학교, 또래와의 관계,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다양하게 탐색되고 있다. 이들 위험요인 중에는 감소시킬 만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위험 요인들은 제거할 수도, 감소시킬 수도 없는 것들도 있다. 청소년 비행 예방 및 개입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위험 요인의 속성을 잘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실제적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Howell, 1998; 유성경 외, 2000 재인용)

이제까지 밝혀진 위험 요인을 개인, 가정, 학교/또래,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험적 연구에 의해서 발견된 지역사회 위험요인은 청소년 행동규준에 대한 법적·일반적 기대치,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 유동성, 조

직화된 정도, 약물 이용 가능성 등이다. 학교변인으로는 학교성적의 하락 및 부진, 학교교육에 대한 낮은 가치감, 학교생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교사들의 무관심 내지는 폭력 등이 발견되었다. 또래 변인으로는 ‘노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문화적 차이를 넘어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유성경, 1999). 가정적 위험요인으로는 가족의 비행경력, 경제적 결손, 가정불화, 구조적 결손(Yashikawa, 1994; 유성경 외, 2000 재인용)등이 지적되어 왔으며, 개인적 수준에서는 감각적, 충동적 성향이 강함, 문제행동을 어려서 시작함, 어려서 싸움을 잘 했음, 감정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위험요인으로 밝혀졌다(Hawkins et al. 1995; 유성경 외, 2000 재인용).

Lipsey와 Derzon(1999)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이전의 종단적 연구들을 메타 분석하여 어떠한 위험 요인이 청소년 비행을 예언하는 데 가장 설명력이 높은지, 위험요인들의 상대적 예언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밝혀진 것은 연령에 따라 위험 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초등학교 연령 집단의 경우, 전반적인 공격성 및 술, 담배의 이른 시작이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고 다음으로 성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e), 반사회적인 부모 등 비교적 교정이 불가능한 요소들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중등학교 연령 집단에서는 반사회적 또래와의 관계, 사회적인 유대감의 결손이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나타나 이 연령 집단에서는 관계와 관련된 측면이 이후 심각한 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개인적 측면의 위험요인에서도 학교 성적 및 학교에 대한 태도가 초등학교에서는 그다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나 중등학교 연령이 되면서 비행에 대한 상대적 예언력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성경 외, 2000).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의 영향력은 청소년 개인의 연령 및 문제 행동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행 예방 및 개입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위험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평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보호 요인

보호요인이란 청소년들이 발달상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완화시켜 주는 요인을 말하며, 위험요인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양종국, 2002).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위험 요인과 청소년 비행이 정적 상관임을 발견하였으나, 어떤 청소년의 경우는 다중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나타났을 것으로 기대되는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았다(Ruter, 1995; 유성경 외, 2000 재인용). 이는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보호요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보호요인은 위험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작용을 함으로써 위험 요인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하여 위험 요인의 영향력을 줄여갈 수 있다.

위험 요인에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적응유연한(resilient)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연구하여 보호 요인의 종류를 밝힌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호 요인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밝혀졌다. 첫째는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지능이 높고, 긍정적인 경향을 가진 기질을 지닌 경우이고, 둘째, '친화력 있는 인간관계'로 가족, 친구, 사회기관 등의 누구와도 따뜻하고 정서적이며 신뢰로운 관계를 진정으로 맺는 경우이다. 셋째, '행동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진 경우이다(Pollard, Hawkins, & Arthur, 1997; 유성경 외, 2000 재인용). 박현선(1998)은 보호요인을 개인적인 요인, 가족 관련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책임감, 내적 통제소재, 계획성, 유능감, 대인관계기술로 보았고, 가족 관련 요인으로는 가족의 지지, 민주적인 양육태도로,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친구의 지지, 전문가의 지지, 교사의 지지, 역할 모델의 영향,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로 보았다. 지승희(2001)는 면접을 통해서 보호요인을 추출하였는데, 개인적 보호요인으로는 자신에 대한 생각, 문제해결력, 자기통제력 등이며, 가족 보호요인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사회적 유능감, 가정의 분위기 등이고, 학교 및 지역사회 보호요인으로는 전반적인 학교생활, 교사나 친구와의 관계, 학업 등이며, 또래요인으로는 친구관계, 선후배관계 등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요인으로 언급된 다양한 요소 중에서 ‘관계를 통한 지지’에 주목하였다. 전술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친화력 있는 인간관계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지지 등이 비행청소년의 비행행동 영향력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계획하는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행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을 예상한다.

3. 비행 청소년과 대인관계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집단 내에서 자기위치와 역할을 알고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해야 하며, 개인 및 사회적 소임에 대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적응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기능적인 문제해결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사회적·도덕적 수준에서의 이해를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인관계 능력은 대인관계에서 도덕적인 추론에 따라 갈등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동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은혁기, 1999). 따라서 대인관계 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단순히 반응하기 보다는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갈등이 생기는 대인관계에서도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반면 대인관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은 상호간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단순히 반응하며,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문제해결을 위한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다.

대인관계문제는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다루지 못하고 피해자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박경애, 이재규, 권혜수, 1998). 즉, 소수인 또는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대인관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상호만족을 추구하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부재, 결함, 혹은 왜곡을 의미한다(최임정, 심혜숙, 2009). 대인관계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주된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 외견상 대인관계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나 직업 및 학업상의 문제들도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인관계적인 어려움을 배후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김유진, 2011).

비행청소년 역시 부족한 대인관계 능력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 설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나 교사와의 갈등이 많을수록 비행이나 부적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우채영, 김판희, 2011), 부정적인 또래와의 관계가 학교폭력 및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우채영, 임재국, 2009)가 있다. 여러 선행 연구들(안권순, 2006; 김영희 등, 2004; 이은희 등, 2004)에서 청소년의 부모, 또래, 교사와의 부정적인 인간관계와 청소년 비행에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지지체계인 부모, 또래, 교사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나 교사와 거부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교사와 친구의 정서적 지원이 적은 상황에서 청소년의 비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의 공격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부정적 대인관계를 촉발하며, 이는 또 다른 스트레스 자극으로 작용하여 비행을 유발하는 것이

다. 특히 이들은 갈등상황에서 공격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는데(김영희 등, 2004), 부정적인 대인관계 대처방식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는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우울을 매개하여 비행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박병금, 노필순, 2007).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본다면 비행청소년의 비행 문제는 대인관계 문제 해결과 더불어 우울감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를 효과적으로 다루어 주기 위해 집단 상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을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후술하였다.

4. 비행 청소년과 우울

청소년기의 우울 증상은 성인기의 우울과는 다르게 불안, 공포, 신체적 불안감 등을 수반하며 행동적으로는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서의 위축과 곤란, 지연 행동, 우유부단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이정희, 2007). 청소년의 우울증은 급변하는 생리 및 신체적인 변화에 따른 충동 조절 능력 약화, 학업 및 입시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 사회 경제적 상대적 박탈감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그 양상은 성인 우울의 전형과는 많이 다르다. 청소년들 자신조차도 우울증을 인식하지 못하는 ‘위장된 우울증’이 많은데(이민정, 2003) 이는 실제로는 우울하지만 이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신체적 증상, 비행행동, 짜증, 잦은 화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기 우울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 및 극심한 무력증, 피로감, 권태감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갈등이나 비행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Essau, Conradt & Pertermann, 2000). 청소년기에 형성

된 우울성향은 은폐된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외현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반사회적 행동, 약물 남용, 학업부진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윤영, 2009; 이주영, 2010).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성인기에 비해 죄의식을 많이 느끼며, 자아 존중감이 저하되고 인지적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Cantwell & Baker, 1991). 물론, 우울증을 가진 청소년은 우울증을 가진 성인처럼 모든 일에 화와 짜증을 잘 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유 없이 신체를 움직이고 사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성적이 저하되거나 수면 장애를 겪기도 한다. 하지만 성인 우울증이 식욕 감퇴를 동반하는 것과 달리 청소년기에는 오히려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외모적으로 자신감을 잃게 되어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아이들이 우울증을 앓는다는 것은 단순히 짜증을 많이 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뼈뿔어진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울을 외현화 하여 표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우울은 아동기에도 나타나지만 사춘기를 전후해서 더욱 급격히 증가하며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분이다. 이들은 우울감을 호소하기보다 일시적인 방황과 반항적인 행동으로 표출한다. 심한 경우에는 탈선, 무단결석, 가출, 규칙이나 법을 어기는 행위 등의 행동장애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행동장애가 학습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비행에 노출되고 점점 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우울에 빠진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 등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우울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방하기가 힘들다.

이처럼 청소년의 우울은 성인기 우울과는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비행성향과 우울은 상호 영향을 주는 변인(이주영, 2000)임이 확인 되었고, 청소년 비행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김자경, 2006; 신현숙 외, 2004)에서도 비행행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특성 중 우울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광금주와 문은영(1993)은 우울이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높은 변인임을 밝혔고, 신현숙(2004)은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은 비행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가족 관계 문제, 또래 문제, 교사와의 관계 문제, 학업 문제, 인터넷 중독, 섭식문제, 충동과잉행동 등에서 문제를 더욱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 하였다. 비행청소년들은 우울로 인한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실을 왜곡하여 지각하며(노안영, 2013) 이는 또 다른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므로 비행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한 정서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비행청소년이 겪는 대부분의 우울은 다른 집단과는 달리 자기의 내재된 분노를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해소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신분석이론에 따르면 우울과 분노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Alexander & French, 1948), 게슈탈트 심리치료 이론에서도 우울을 ‘반전된 분노’로 보고 있다(김정규, 201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우울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분노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우울의 특징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비행청소년이 겪는 대부분의 우울은 다른 집단과는 달리 자기의 내재된 분노를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해소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비행청소년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 개입하였다.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의 접근 중 하나로 감정 단어카드를 이용하여 감정 알아차림과 알아차린 감정의 명명을 훈련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되어 있다.

5. 비행 청소년과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Self-control)은 자신의 인지·정서·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김남성(1995)과 김현숙(1998)은 자기통제력을 ‘목표달성을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 하였고, 최정희(2010)는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돕는 집중력으로 자신위주로 생각하거나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등의 문제행동을 피하고 욕구를 지연시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 했다. 이경남(2000)은 ‘스스로 상황적인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으로, 임은실(2002)은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충동적이지 않게 행동할 수 있으며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만족 지연을 위해 인내하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자기 통제력을 ‘순간적인 유혹에 견디지 못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그들은 낮은 자기통제력을 일탈행위와 범죄행위를 설명하는 개인 수준의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민수홍, 2005, 재인용). 범죄행위는 일시적인 욕구만족을 추구하고, 그러한 욕구만족을 위해 쉽고 간편한 방법을 사용하며, 모험과 스릴을 통해 쾌감을 즐기는 경향성과 함께, 장기적 계획을 세우거나 숙련된 기술을 연마하는 노력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의 특징과 관련하여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일시적인 욕구만족을 자제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분별력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특징들은 범죄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높은 자기 통제력은 범죄행위를 억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김정남, 2010).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즉각적인 욕구충족, 흥분되거나 위협한 스릴 있는 행동의 선호, 장기적인 이익에 대한 무관심 및 준비 부족, 지식 습득을 위한 기술과 계획의 부재 등의 성향이 강하다.

이와 반대로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이지적이고 조심성이 많으며, 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행에 억제적이다(양종국, 2002).

이처럼 Gottfredson 등은 자기 통제력이 청소년의 비행을 예측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이며, 어린 시절 형성된 자기 통제력은 평생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다양한 범죄유사행위까지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실제 많은 경험연구를 통해 낮은 자기 통제력과 비행 혹은 범죄 간의 관계가 검증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은 비행이나 범죄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민수홍: 1996: 고정자, 2005; 박순진, 2005; 민수홍, 2006; 박영실, 2007; 이성대 외, 2013). 낮은 자기 통제력이 청소년의 온라인·오프라인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성식, 2010; 조주연, 김신영, 2010; 정혜원, 정동우, 2012), 낮은 자기 통제력과 더불어 비행을 촉발하거나, 완충하는 환경적 조건을 함께 탐색하는 연구(정혜원, 박성훈, 2011), 부모의 자기 통제력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신송연, 장현석, 2013) 등을 살펴봄으로써 자기 통제력을 비행의 원인으로 다루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의 공통점은 아동기의 낮은 자기 통제력이 청소년기의 비행으로 이어지거나, 낮은 자기 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라는 것을 지지하였다.

비행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자기 통제력 수준이 낮아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낮은 자기 통제력은 충동성, 단순과제 선호, 위험 추구성, 육체활동 선호, 자기중심성, 화내는 기질로 구성된다(정혜승, 1995). 비행청소년은 자신의 감정이나 요구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며(Farrington, Loeber & Van Kammen, 1990: 김잔디, 2000, 재인용), 매우 자기중심적이다(김길청, 1988). 이와 같은 충동적 성향은 사고 및 행동통제와 관련되어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비행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청소년 비행과 자기 통제력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지속성의 부족과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낮은 자기 통제력이 지위비행이나 청소년 범죄,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 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박미경, 2012) 재비행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민원홍, 2014). 이런 의미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개입 시에 비행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을 다루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일시적인 욕구를 자제하고 지연시킬 수 있도록 낮은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 이로써 비행청소년이 비행을 일으키는 위험요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갖출 때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자기 통제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을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술 하였다.

6. 게슈탈트²⁾ 심리치료와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

건강한 개인은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개여 있으면서 이러한 상호작용 중에 매 순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려 분명한 게슈탈트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개체가 알아차림을 차단시키면 게슈탈트 형성은 불가능하게 되고 행동은 목표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며, 해소되지 못한 욕구와 감정은 미해결과제로 남아 문제를 일으킨다. 즉, 미해결과제는 완결을 요구하면서 강박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된다.

2) 게슈탈트(Gestalt)란 ‘모양’, ‘형태’, ‘전체’ 혹은 ‘구조를 가진 개체’ 등을 뜻하는 독일어인데, 영어로 번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도 그냥 사용한다. 게슈탈트란 개체가 환경을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는 형태로 조직화하여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Polster & Polster, 1974; 김정규, 2014 재인용). 개체는 어떤 자극에 노출되면 그것들을 하나하나의 부분으로 보지 않고 완결성, 근접성, 유사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극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 혹은 형태, 즉 ‘게슈탈트’로 만들어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김정규, 2014).

게슈탈트 치료이론은 모든 정신병리 현상들은 알아차림의 결여로 인해 발생한다고 본다. 즉, 만일 개인이 유기체-환경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들을 잘 알아차린다면 미해결과제가 쌓이지 않게 되고, 따라서 정신병리 현상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힘은 무의식 영역에 간혀있는 충동들이라 하였는데, 치료는 이러한 무의식적 에너지들을 의식화시키는 한편 이것들이 병적 행동들의 원인이라는 것을 통찰하는데 있다고 본다(김정규, 2015). 게슈탈트 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알아차림(awareness)과 접촉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모든 심리장애는 궁극적으로 알아차림과 접촉이 결여된 상태라고 보며, 따라서 내담자들은 알아차림과 접촉을 회복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슈탈트 치료의 창시자인 퍼얼스는 ‘알아차림 그 자체가 바로 치료적이다(Perls, 1951)’ 라고 했으며, 또한 심킨과 오펜트프(Simkin, J. S. & Yontef G. M., 1984)는 ‘알아차림이 게슈탈트 치료의 유일한 목표이며, 필요한 모든 것’ 이라고 말할 정도로 알아차림의 의미를 중시했다. 알아차림은 미해결과제를 전경으로 떠올려 강한 게슈탈트를 형성하여 이의 완결을 가능하게 해 주는 행위이다. 게슈탈트치료에서 치료란 강한 게슈탈트를 형성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알아차림은 게슈탈트를 형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알아차림은 게슈탈트 치료의 핵심적 개입이 된다고 할 수 있다(Resnick, 1990; 김정규 2015 재인용). 알아차림은 단순히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해결과제를 자각하여 전경으로 떠올리고 거기에 집중하여 미해결과제가 완결될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는(staying with)’ 과정을 포함한다. 미해결과제에 대한 알아차림은 많은 고통을 가져다주므로 내담자들은 차라리 미해결과제들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알아차림을 지속해 나가면 미해결과제가 해결될 수 있고, 미해결과제가 해결되는 만큼 지금-여기의 상황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게슈탈트 치료는 알아차림과 접촉을 기반으로 하지만, 궁

극적으로는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며(김정규, 2015), 환경 내 접촉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Passons, 1975, 1995)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체가 자신의 접촉경계혼란을 알아차려 제거하고, 불안으로 변형되어 표출되는 에너지를 타인 및 환경과의 접촉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대인관계 역량과 같은 개인의 변화와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Harris, 2000; 이상하, 2009 재인용).

국내연구에서는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게슈탈트 집단상담의 치료요인에서 정서적 인식과 통찰이 치료효과를 예측하는 정적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이상하, 2009), 게슈탈트 예술치료를 통해 우울장애 환자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확인한 연구는 반복적인 정서경험이 접촉경계혼란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이들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나해숙, 2006).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 (GRIP: 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이하 ‘그립(GRIP)’)은 게슈탈트 치료 이론에 근거하여 일반아동, 청소년, 성인 및 각종 심리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치유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구조화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정상집단(학교, 기업, 종교단체, 사회단체)과 각종 심리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의 집단 상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게슈탈트치료에서 인간은 유기체적 존재로 이해되고 여기서 유기체란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를 의미한다. 인간은 타인을 포함한 환경과의 관계성 또는 연결성 속에서만 온전히 성장하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다(Yontef, 1993: 김정규, 1995 재인용). 따라서 게슈탈트 치료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관계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그립(GRIP)에서 말하는 ‘관계성’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대인관계 능력’보다 훨씬 넓고 포괄적인 의미이다.

즉 그립(GRIP)의 관계성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신체와 정서, 욕구, 생각, 지각, 상상을 억압하지 않고 잘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타인과의 ‘대화

적 관계성' 속에서 적절히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알아차리고 이해하며, 타인과 공감적으로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적, 문화적 및 자연적 환경과도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립(GRIP)의 전체구조는 알아차림 연습, 각종 놀이 및 예술매체를 활용하는 작업, 그립도구들을 활용하는 작업 순으로 되어 있다. 알아차림 연습은 6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실습을 통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구조화 되어 있다(김정규, 2010). 알아차림 연습의 교육 목표는 첫째, 현상 알아차림을 통하여 개인의 내적 현상 및 외부 현상들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주고, 둘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신체 등의 중요한 내적 현상들의 상호연결성을 깨닫도록 도와주며, 셋째,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내적 현상들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켜주고, 넷째, 좀 더 일상적인 형태의 자연스런 대화 속에서의 나-너 관계를 체험하고, 다섯째, 공감을 통한 타인과의 연결성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며, 여섯째, 과거의 미해결과제를 지금-여기의 관계성 속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데 있다.

각종놀이 및 예술매체를 활용하는 작업으로는 어린 시절 집 그리기, 나무 되어보기, 가족상징 작업, 찰흙작업, 풀라주 작업, 집단 그림, 집단 환상, 집단 동물인형놀이 등이 있다. '어린 시절 집 그리기'는 어린 시절 살던 집을 떠올리고, 집의 구조와 더불어 각 공간에 얽힌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개방을 하게 되므로 집단 작업 초기에 자기개방과 더불어 집단 라포 형성에 매우 도움이 된다. 가족 상징작업은 상징과 색채 및 화살표를 사용하여 가족 관계의 역동을 알아보는 작업으로 종종 불분명했던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찰흙작업'은 전형적인 미술치료 기법으로 게슈탈트 예술 치료에서 많이 쓰인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 그리고 행동을 알아차리고 접촉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풀라주 작업' 또한 비협조적이거나 무기력한 아동

청소년이나 정서가 억압된 성인들의 치료동기를 높여주고, 전형적인 행동패턴과 미해결과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집단 그림'은 집단이 함께 한 장의 그림을 그리면서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알아볼 수 있는 기법으로 그 자체가 즐거운 활동이면서도 집단 속에서 개인의 반복적인 행동방식이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기법이다(김정규, 2010).

그림도구를 활용하는 작업은 그림(GRIP) 작업을 위해 따로 개발된 마음자세카드(GR-1), 그림상황카드(GR-2), 감정단어카드 및 감정 단어장(GR-3), 그림가족인형(GR-4), 그림보드게임(GR-5)을 사용한다. 마음자세카드는 65가지의 긍정적인 마음자세로 내담자들이 활동을 통해 긍정적 가치관 및 내사와 관련된 작업, 대인관계 상호작용,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향상 작업 등을 하는 것이다. 그림상황카드는 62가지 사회적 상황을 묘사한 그림카드로 미해결과제를 억압하고 있거나 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상담 동기가 낮은 아동청소년과 감정억압이 심한 성인 내담자에게 유용하다. 감정단어는 행복한 감정, 화난 감정, 두려운 감정,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의 5개 범주로 정리한 감정목록으로 정서 알아차림과 정서표현 놀이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가족인형은 내담자 행동진단, 상담 주제 탐색, 정서접촉 작업, 미해결 과제 작업, 자아 존중감 향상 그리고 자기개방과 상호작용 촉진을 목적으로 개발 되었다. 그림보드게임은 게임을 통해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담자들의 자기개방과 상호작용 그리고 상호피드백을 통한 상호지지를 가능하게 한다. 이 도구들은 미해결과제를 억압하고 있거나,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혹은 상담 동기가 낮은 아동 청소년 내담자들에게 매우 효과가 있다(김정규, 2010).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구성은 매 회기 초반에 알아차림 연습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과 환경, 미해결과제에 대한 알아차림을 촉진하고 집단 상호 작용의 기초를 마련한다. 알아차림 연습 후 여러 가지 예술매체와 그림

(GRIP) 도구를 이용한 각 회기 예정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각 회기 별 소감 나누기를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법원으로부터 6호 처분을 받고 경기도 소재의 보호관찰기관에서 생활하는 비행청소년들이다. 해당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접근통제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참여 청소년을 선정하고, 참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연구과정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선정된 청소년을 두 집단(실험, 통제)으로 무선 할당 한다.

선행연구들(이상하, 2009; 송혜정, 2013; 심예량, 2013 등)에서 집단원은 대개 8-11명으로 구성되었고, 집단 치료의 효과 연구에서 집단의 크기는 7-8명이 이상적(김형태, 2011)이라는 논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치료집단과 통제집단 각각 8명으로 구성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프로그램 구성
- (2) 집단 구성
- (3) 사전검사 실시 - 프로그램 시작 1주 전
- (4) 프로그램 시행 - 주 2회기, 5주간, 총 10회기
- (5) 사후검사 실시 - 프로그램 종료 시
- (6) 추후검사 실시 -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3. 치료프로그램의 목적 및 개발방향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비행 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며,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이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계슈탈트 전공 교수 1인과 계슈탈트 전공 박사 1인의 자문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 프로그램을 집단상담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을 총 10회기로 기획하였으며, 프로그램 구성은 그립(GRIP)을 참고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이처럼 그립(GRIP)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집단 상담 형식으로 꾸린 이유는 집단치료가 서로 지지와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므로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Yalom & Leszcz, 2005). 비행청소년들이 집단치료를 통해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지지와 격려를 나누면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립(GRIP)은 계슈탈트 심리치료 이론에 근거하여 일반인과 심리장애를 가진 집단들의 성장과 치료를 돕고자 제작된 구조화 프로그램(김정규, 2010)으로서 '관계성' 향상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본 연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그립(GRIP)은 개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소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그립(GRIP)은 필요에 따라 상담자가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여 응용 사용이 가능(김정규, 2010)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와 그립(GRIP) 매뉴얼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

비행청소년의 비행요인과 관련한 선행논문을 검토한 결과 비행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자 심리적 특징으로서 우울(정서적 요인), 대인관계 문제(관계적 요인), 자기통제력 문제(행동적요인)가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완화시키며, 자기 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치료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시하였다.

다음은 그립(GRIP)의 집단 발달 단계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 내용과 우울 감소 및 대인관계 능력, 자기통제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 재구성한 프로그램 내용이다.

4. 집단 발달 단계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각 회기마다 도입부 20분, 작업 50분, 마무리 20분, 정리 10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집단 상담의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은 <표3>과 같다.

(1) 초기 단계(1-3회기)

집단 초기에는 집단 리더 및 집단 구성원들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매 회기는 알아차림 연습으로 시작하였다.

1회기는 집단원과 리더 간의 라포 형성에 초점을 두었다.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집단치료에 대한 개괄적 소개를 하고 집단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참여자들이 정하도록 하였다. 자기소개를 위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다음 집단에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라고 상대를 소개하였다. 이는 집단원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첫 걸음이 되었다. 마음자세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기르고 싶은 마음자세를 선택하게 하여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목표를 갖게 하였다. 집단 중기와 후기에 목표달성 정도를 스스로 평가 하게 함으로써 책임감과 자기 통제력을

갖도록 하였다.

2회기는 가장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도록 유도하여 ‘어린 시절 집 그리기’를 하였다. 어린 시절 집과 가족에 대한 자연스러운 자기 개방을 통해 가족의 지지와 사랑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 서로 비슷한 또는 다른 어린 시절에 대해 집단원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그 시절의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도록 하였다. 집단원 상호 활발한 피드백을 통해 대화적 관계와 대인관계를 촉진하였다. 집단 리더와 집단원들의 공감과 지지 역시 치료적으로 유용한 점이었다.

3회기는 집단원간 친밀감과 응집력을 높이고자 그림보드 게임과 미션카드를 활용하였다. 특히, 사전에 ‘격려’와 ‘지지’ 위주로 꾸러진 미션카드를 선정하여, 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지지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알아차림과 공감, 지지를 촉진하고자, ‘아~그랬구나’ 같이 간단하고 저항감이 없으며 반복하기 쉬운 추임새 넣기를 유도하였다. 또한 평소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등의 말을 미션카드를 활용하여 직접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은 집단초기 집단원 간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2) 중기 단계(4-8회기)

중기 단계에서 계슈탈트 치료집단은, 접촉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자각함과 동시에 본래의 자신과 접촉 할 수 있는 생생한 실험이 주로 일어난다. 집단원들이 우울, 분노 등 자신의 다양한 감정 및 욕구를 알아차리고 접촉 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개별 작업뿐만 아니라 집단 작업도 함께 실시하여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접촉과 공감 및 교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비행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자의

미해결 과제를 찾아 집단 내에서 다루어봄으로써, 체험의 확장과 통합을 이루도록 돕는다.

4회기는 조용한 음악과 함께 찰흙 작업을 하였다. 자신의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찰흙을 만지고 주무르며 감각과 감정의 알아차림을 하도록 한다. 찰흙은 언제든지 고쳐 만들 수 있으며 찰흙을 통해 통제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Violet Oaklander, 2006). ‘눈을 감고 자신만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찰흙을 양손으로 느껴보세요. 눈을 감을 채 손가락만 움직여 찰흙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지 느껴보고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만들어 봅니다.’ 라는 지시문을 들려주고 작업이 끝나고 ‘가장 좋았던 것/가장 싫었던 것’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상호 피드백 하였다. 이는 감각 알아차림의 증진과 표현을 목표로 하였다.

5회기는 감정 단어카드를 활용하여 먼저 다양한 감정 어휘를 익히도록 스피드 게임을 하였다. 표정과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그것을 보고 감정 단어를 맞추는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감정단어와 친숙해 진다. 감정 단어카드는 행복한 감정, 화난 감정, 두려운 감정,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의 5개 범주로 나누어져 있는데, 비행청소년의 표현되지 못한 분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화난 감정’ 카드를 주로 이용하여 최근 느낀 감정을 찾아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스토리텔링을 하도록 하였다. 필요한 경우 ‘빈 의자’ 기법을 이용하여 직접 표현을 유도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집단원이 있으면 함께 표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이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에 대한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왔다.

6회기는 두 사람씩 짝을 이루어 핸드크림을 이용하여 서로 손을 마사지해주는 기를 하면서 집단원 간 자연스런 신체접촉을 통한 친밀감 향상을 촉진했다. 마사지를 하며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나누며 신체 감각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신체와 감정의 연결성을 일깨웠다. 이어서 그림상황카드를 사용하여 자신과

비슷한 인물, 자신을 화나게 하는 인물을 골라 이야기하게 했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높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게 하였다.

7회기는 3단계 알아차림 연습을 하였다. 1단계에서는 신체, 소리, 생각, 사물, 욕구 등의 현상 알아차림을, 2단계에서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신체의 상호연결성 알아차림을 연습하였고 3단계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알아차림을 연습하였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내적 현상들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껴진 감정을 풍선에 표현했다. 상상놀이를 통해 풍선 터트리기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런 감정의 해소를 도왔다.

8회기는 자신의 가족을 상징이나 동물로 표현하는 ‘가족 상징 작업’을 하였다. 눈을 감고 자신의 세계로 들어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실제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였다. 색깔이나 형태, 사물, 동물 등을 사용하고 화살표를 이용하여 서로의 관계를 표시하였다. 다 그린 후에는 상징들 간에 서로 대화를 하도록 하였다.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요인 연구에서 김현실(1995)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가정 역동적 환경 요인이라고 하였고, 김동태(2010)는 비행청소년은 가족 간의 사랑과 안정감을 주는 가정기능의 결핍이 그들에게 버려졌다는 외로움을 주는 가장 큰 고통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작업은 가족의 역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실제 가족이 없는 가운데서 가족 구성원에게 쉽고 안전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행의 위험요인 또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집단원 간 피드백을 통해 그들의 보편성과 개인차를 인식하게 되었고 자신에 대해 보다 넓은 이해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중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작업을 통해 자기 자신의 억제된 감정과 이

와의 접촉을 가로막는 것들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집단원 간의 의미 있는 상호 작용을 토대로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가졌다.

(3) 후기단계(9-10회기)

치료 과정을 마무리하며 자기를 수용하고 그 동안의 내적 경험을 통합 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깊어진 자기개방을 토대로 타인과의 대화적 관계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지지 및 자기지지를 촉진 하도록 유도하였다.

9회기는 집단원 각자로 하여금 미래와 꿈에 대해 상상하게 한 다음, 이를 같은 종이 위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집단 그림 작업을 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 이 한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볼 수 있었다. 양보하는가? 협상하는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는가? 작업동안은 침묵하게 하고 다 그린 후에 경험한 것을 나누었다. 작업의 특정 과정은 실제 삶을 암시할 수 있었다(Violet Oaklander, 2006). 타인과의 관계성을 알아볼 수 있고 자신의 미래 설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었다. 그 다음 10년 후 자신에게 편지 쓰기를 하며 장기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마음자세 카드를 고르고 이야기하게 하였다.

10회기는 먼저 집단 상담에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와 이루어진 정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 '칭찬하기'를 하였는데, 이때 마음 자세 카드를 활용하여 자신에게서 길러진 마음자세를 고르게 하였다.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발견한 칭찬하고 싶은 마음자세를 고르게 하여 서로 선물하게 했다. 이를 통해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한 자신의 장점을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소감 나누기를 했다.

<표 3>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방지를 위한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

회기	단계	목표	프로그램 내용
1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친밀감 형성 · 목표설정 	프로그램 소개 별칭 짓기 및 자기소개 알아차림 연습 1 단계 마음자세카드로 집단참여 목표설정 (기르고 싶은 마음자세)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및 신체 알아차림 · 라포 형성 및 자기개방 · 감정 알아차림 	알아차림 연습 1단계 어린 시절 집 그리기 (행복한 어린 시절 회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및 신체 알아차림 · 대인관계형성 촉진 	알아차림 연습 1단계 그룹보드게임 (지지와 공감 미션카드 사용)
4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아차림 증진 · 감정 알아차림 	알아차림 연습 2단계 찰흙 작업 (현재 감정을 중심으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단어 익히기 · 감정 접촉하기 · 자기 통제력 증진 	알아차림 연습 2단계 감정단어카드 스피드게임 감정단어를 이용한 자기개방 (분노 감정을 중심으로)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미해결과제 발견 · 관계체험촉진 	알아차림 연습2단계 핸드크림을 사용하여 손 마사지하기 그림상황카드를 이용한 자기개방 (자신 닮은 인물, 화나는 인물)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알아차림 · 감정 표현하기 	알아차림 연습 3단계 풍선에 마음 표현하기 마음자세카드(목표달성)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표현 · 우울감, 분노감 해소 	알아차림 연습 3단계 가족 상징 작업/ 가족 그림 인형 (가족에서 느낀 감정 찾기, 표현하기)

9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설계 · 자기통제력 증진 	알아차림 연습 3단계 집단 그림 그리기(꿈/ 미래) 나에게 쓰는 편지(미래 설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체험, 관계 확장 · 지지자원 확보 · 자아통합감 증진 	알아차림 연습 3단계 마음자세카드 작업 및 선물하기 소감 나누기

5. 우울 감소,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통제력 증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내용

집단 발달단계에 따라 그림(GRIP)을 초기 단계, 중기 단계, 후기 단계로 구성하는 것과는 별도로, 본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우울 감소, 대인관계 능력 및 자기통제력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이에 특화하여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

(1) 대인관계문제 감소를 위한 개입방법

비행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는 앞서 ‘보호요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변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데서 촉발되는 것이기도 하다. 일탈행동으로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반응을 줄곧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의 ‘대인표상’은 무척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다. 따라서 비행청소년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 정서적 지지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토대로 긍정적인 대인관계상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첫째, 집단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일에 주력하였고, 둘째, 가족 작

업을 통해 ‘안전기지’를 형성하는 과정을 촉진했다.

이를 위해 3회기에는 집단원 간 친밀감을 촉진시키고자 그림보드게임을 실시하였다. 이때 본 연구자는 사전에 주로 지지와 공감을 미션으로 삼는 카드를 선별하여, 게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계획했다. 게임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지지와 격려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단원 간 친밀감을 형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6회기에는 핸드크림을 사용하여 집단원 간 서로 손을 마사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영자(2006)와 손윤경(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체접촉은 집단원의 친밀감을 급격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언급된 바 있다. 게슈탈트 심리치료 이론에서도 포옹, 악수와 같은 신체접촉은 타인과의 긴밀한 접촉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핸드크림을 이용한 신체접촉은 강력하고 직접적인 친밀감 및 신뢰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8회기의 가족 상징 작업과 가족 그림인형은 가족과 연루된 미해결과제의 해소와 함께 ‘안전기지(secure base)’를 재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이 작업을 통해 집단원 개인은 자신에게 관심을 주었던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등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가족 간 긍정정서를 인식할 수 있었으며, 폭력적이고 학대적이었던 가정 구성원의 이야기를 하면서는 분노 감정을 접촉했다. 자기 자신이 가정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다룬 하위집단을 형성했던 이유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집단원 개인이 안전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그려보게 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10회기의 마음자세카드 작업 및 선물하기 작업은 집단원이 서로에게 발견한 좋은 마음자세를 칭찬해주는 시간으로 후기 단계의 성과를 마무리하고 집단응

집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 또한 집단 지지와 격려를 확고히 하는 과정이었다고 판단된다.

(2) 우울 감소를 위한 개입방법

비행청소년의 우울은 전술한 것처럼 폭행, 가출, 거짓말 등과 같은 외현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기저 심리에는 분노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병식(insight)과 언어표현능력이 부족한 비행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실제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여 이를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이 자신의 외현화된 행동 뒤에 숨은 ‘분노’라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 회기 중간마다 집단원 개인으로 하여금 ‘분노’ 계열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을 썼다. 초기 단계에서 집단응집력이 형성된 뒤, 중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감정 단어’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 먼저 이를 언어나 다른 매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비행청소년들이 빈약한 가정환경과 학습성취도 저조 등의 이유로 감정 표현에 서투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5회기에는 ‘스피드 게임’을 통해 집단원이 감정 단어를 자연스럽게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가급적 ‘분노 감정’ 계열의 감정단어카드 더미를 제시하여, 이를 중심으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개방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집단원에게 감정단어를 학습하고, 자신의 분노 감정을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중, 후기 단계의 심도 깊은 자기개방을 촉진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6회기에는 그림상황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미해결과제에 접촉하는 기

회를 가졌다. 이 때 ‘자신을 닮은 인물’이나 ‘화나게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카드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집단원 개인에게 분노와 적대감을 유발한 과거의 인물을 탐색함과 동시에 투사되어 자각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합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집단원 개인은 과거에 자신에게 폭력적이었던 인물을 떠올리면서 분노 감정을 자각하였고, 이에 대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집단원 앞에서 표현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과정들은 집단원이 자신의 미해결과제와 연루된 분노감정을 접촉하고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3) 자기통제력 향상을 위한 개입방법

본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의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립(GRIP)의 접근으로 ‘마음자세카드’를 활용하였다. 자기통제력 향상을 연구한 많은 치료 연구를 참조하면, 내담자에게 일정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의 수행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내담자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김효숙, 박영태, 2009). 마음자세카드는 상담 초기단계에서 집단원으로 하여금 상담목표를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김정규, 2010), 내담자의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 중 하나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 회기에 마음자세카드를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태도나 마음자세가 무엇인지 탐색하도록 유도하고, 7회기와 마지막 회기에서 설정한 목표를 잘 수행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지각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측정하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6. 연구 설계

본 연구에 적용된 연구 설계는 그립(GRIP)에 참여한 치료집단과 집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자기보고식 사전-사후 검사로 진행하였다.

치료집단의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추후 검사를 실시한다.

이 연구의 독립변인은 그립(GRIP)이며, 종속변인은 대인관계문제, 우울, 자기통제력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설계 모형은 <표 4>와 같다.

<표 4> 연구 설계 모형

집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추후검사
치료집단	O1	X	O3	O5
통제집단	O2		O4	O6

O1-O6 : 대인관계문제, 우울, 자기통제력 설문 검사

X :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집단 프로그램(GRIP)

7. 측정도구

(1)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 검사 단축형 (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 : KIIP-SC)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관계 문제 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은 Baer,

Horowitz, Rosenberg, Ureno, Villasenor(1988)가 대인관계문제검사(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를 개발하고, Alden, Wiggins와 Pincus(1990)가 64문항으로 재구성한 원형척도(IIP-Circumplex Scale, IIP-C)를 김영환 등(200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검사의 단축형 검사이다. 특히 이 척도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대인관계문제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척도 구성은 다음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통제지배(PA), 자신의 안녕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자기중심성(BC),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냉담(BE), 비사회적인 경향과 수줍음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사회적 억제(FG), 자신감과 주장성 및 자존감 결여와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비주장성(HI),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설득 당하거나 이용당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과순응성(JK), 타인의 욕구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자기희생(LM),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관여와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과관여(NO)이다. 하위요인 당 각 5문항씩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은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총점은 최소 40점에서 최대 200까지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영환 등(200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대학생과 성인이 각각 .61~.81, .61~.78의 범위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대학생과 성인이 각각 .60~.78, .58~.77의 범위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표 5>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단축형의 문항구성

문항구성	문항 수	문항번호
통제지배	5	19, 21, 27, 30, 33
자기중심성	5	6, 7, 10, 13, 22
냉담	5	2, 8, 9, 15, 18
사회적 억제	5	4, 12, 17, 31, 36
비주장성	5	1, 3, 5, 11, 16
과순응성	5	14, 23, 34, 37, 39
자기희생	5	20, 24, 25, 32, 40
과관여	5	26, 28, 29, 35, 38
총 40문항		

(2) 역학 연구센터 우울 척도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 Scale: CES-D)

비행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조맹제와 김계희(1933)가 번안한 역학 연구센터-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 Scale: CES-D)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이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우울척도이며,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우울증상의 빈도에 따라 우울증상을 4단계의 수준으로 측정한다. 이 중 긍정적 정서에 대한 3문항(5, 10, 15)은 역코딩 한다. 총점은 20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맹제와 김계희(193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3) 자기통제력 척도

자기통제력 척도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사용한 자기통제력 척도

와 김현숙(1998)의 자기통제평정 척도를 참고로 남현미(1999)가 보다 쉽게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장기적 만족추구 정도에 관한 10문항과 즉각적 만족추구 정도에 관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는 보다 집중력이 있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며,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이용되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는 충동적이고 자신위주로 생각하며,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경향이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점 범위는 20점에서 100점까지 이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문항은 10개(척도의 1, 2, 4, 8, 10, 11, 12, 13, 15, 20번)이며, 연구 목적에 맞게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의 낮은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 장기적 만족추구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에 포함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남현미(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8이었다.

8.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모두 SPS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치료 전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검사에 대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 (2) 치료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측정시점에 따라 대인관계문제, 우울, 자기 통제력의 증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2(집단: 치

료집단, 통제집단)×3(측정시기: 치료 전, 치료 후, 추후) 혼합설계 변량 분석(반복측정 ANOVA)을 실시하였다.

- (3) 집단 내 측정시기 별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해 각 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후 대응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치료 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에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척도(대인관계문제, 우울, 자기통제력)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두 집단의 각 척도별 사전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인관계문제, 우울, 자기통제력의 사전측정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전술한 영역에서 사전 동질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치료 전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치료집단 ($n=8$) $M(SD)$	통제집단 ($n=8$) $M(SD)$	t
대인관계	106.75 (23.28)	86.63 (29.13)	1.53
우울	42.13 (7.70)	35.13 (10.47)	1.52
자기통제	66.00 (9.94)	60.75 (8.05)	1.16

2.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그립(GRIP)에 참여한 비행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 우울, 자기 통제력에 치

료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가시기에 따른 점수를 비교하였다.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각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7>과 같다.

<표 7>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가시기에 따른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치료집단 (n=8)			통제집단 (n=8)		
	사전 M(SD)	사후 M(SD)	추후 M(SD)	사전 M(SD)	사후 M(SD)	추후 M(SD)
대인관계	106.75 (23.28)	97.63 (27.68)	103.88 (21.23)	86.63 (29.13)	93.88 (28.24)	96.88 (31.27)
우울	42.13 (7.70)	36.38 (7.35)	33.75 (7.48)	35.13 (10.47)	40.75 (12.27)	42.75 (11.08)
자기통제	66.00 (9.94)	62.50 (7.70)	62.13 (13.35)	60.75 (8.05)	64.38 (7.96)	63.63 (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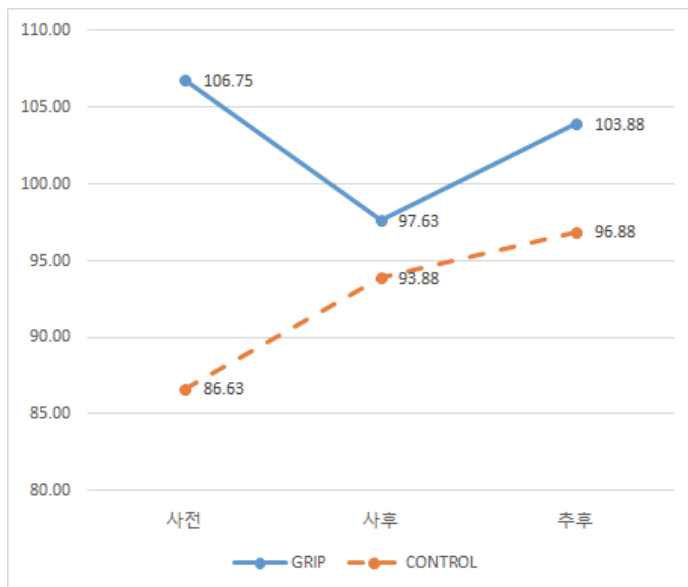
연구가설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인관계문제의 집단 간 치료 효과 비교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하여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두 집단 간 측정시기(사전, 사후, 추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측정시기의 주효과 및 집단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집단과 측정시기 간 상호작용효과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측정시기 별 변화의 양상이 치료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두 집단 간 측정시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수준의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표 8> 대인관계문제 변량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피험자 간				
집단	1271.02	1	1271.02	.65
오차	27201.13	14	1942.94	
피험자 내				
시기	191.23	2	95.65	.77
집단×시기	601.29	2	300.65	2.42
오차(평가기기)	3478.75	28	124.24	



<그림 1> 두 집단 간 측정시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의 추이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사전, 사후, 추후 측정치 간 차이를 검증하고자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인관계문제 사전-사후, 사전-추후 검정

집단별	사전	사후	추후	집단내 변화(<i>t</i>)	
	<i>M</i> (<i>SD</i>)	<i>M</i> (<i>SD</i>)	<i>M</i> (<i>SD</i>)	사전-사후	사전-추후
치료집단	106.75 (23.28)	97.63 (27.68)	103.88 (21.23)	2.94*	.40
통제집단	86.63 (29.13)	93.88 (28.24)	96.88 (31.27)	-1.37	-2.37*

* $p < .05$

치료집단의 대인관계문제 수준은 사전 측정치에 비해 사후 측정치가 유의미하게 감소되었고($t=2.94$, $p<.05$), 통제집단의 대인관계문제 수준은 사전-사후 측정치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프로그램의 치료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종결 4주 후 측정한 추후 측정치는 치료집단에서는 사전 측정치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통제집단에서의 추후 측정치는 사전 측정치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t=-2.37$, $p<.05$). 이는 대인관계문제 감소에 대한 프로그램 처치 효과의 지속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치료 프로그램 실시 이후와 추후 검사 시기 동안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가외변인의 작용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프로그램의 효과가 치료집단에서 대인관계 문제 증가를 완화시키는 완충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우울의 집단 간 치료 효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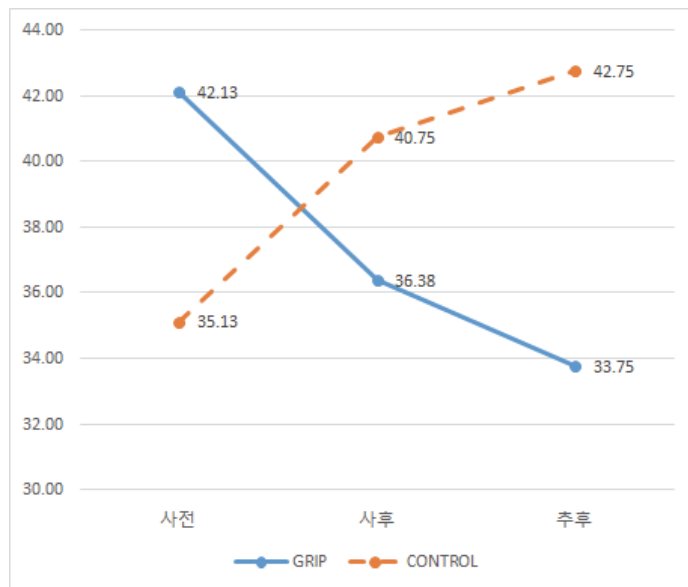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하여 우울에 대한 두 집단 간 측정시기(사전, 사후, 추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측정시기의 주효과와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집단과 측정시기 간 상호작용

용효과는 유의미하였다($F(2, 28)=3.90, p<.05$). 이 결과는 우울에 대한 측정시기 별 효과의 양상이 치료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두 집단 간 측정시점에 따른 우울 수준의 추이는 <그림 2>과 같다.

<표 10> 우울 변량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피험자 간				
집단	54.19	1	54.19	.40
오차	1916.46	14	136.89	
피험자 내				
시기	1.29	2	.646	.009
집단×시기	542.38	2	271.19	3.90*
오차(평가시기)	1947.67	28	69.56	

* $p < .05$



<그림 2> 두 집단 간 측정시점에 따른 우울의 추이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우울에 대한 사전, 사후, 추후 측정치 간 차이를 검증하고자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우울 사전-사후, 사전-추후 검정

집단별	사전	사후	추후	집단내 변화(t)	
	$M(SD)$	$M(SD)$	$M(SD)$	사전-사후	사전-추후
치료집단	42.13 (7.70)	36.38 (7.35)	33.75 (7.48)	2.05	1.79
통제집단	35.13 (10.47)	40.75 (12.27)	42.75 (11.08)	-1.94	-1.65

치료집단의 우울 수준은 사전 측정치와 사후 측정치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프로그램 종결 4주 후 측정한 추후 측정치 또한 사전 측정치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통제집단의 우울 수준은 사전 측정치와 사후 측정치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추후 측정치 또한 사전 측정치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비록 사전-사후 측정치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치료집단에서 우울 수준은 측정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통제집단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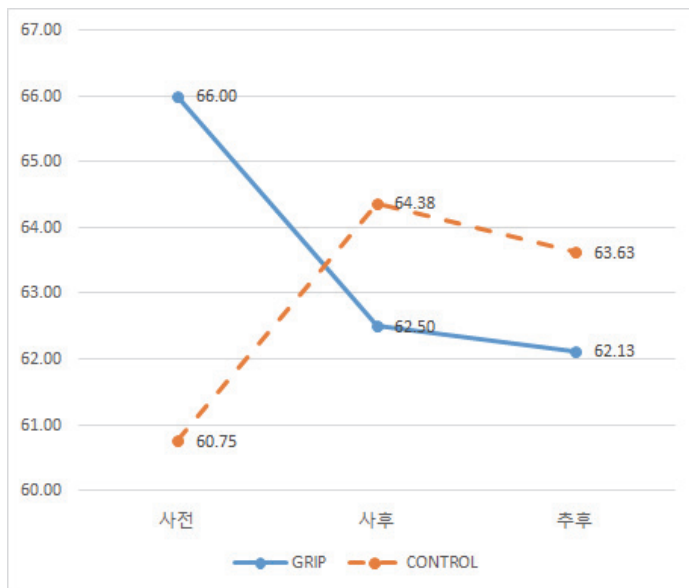
(3) 자기통제의 집단 간 처치효과 비교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하여 자기통제에 대한 두 집단 간 측정시기(사전,

사후, 추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집단의 주효과와 측정시기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집단과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두 집단 간 측정시점에 따른 자기통제 수준의 추이는 <그림 3>과 같다.

<표 12> 자기통제 변량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피험자 간				
집단	4.69	1	4.69	.02
오차	3029.79	14	216.41	
피험자 내				
시기	3.04	2	1.52	.06
집단×시기	128.63	2	64.31	2.69
오차(평가시기)	668.33	28	23.87	



<그림 3> 두 집단 간 측정시점에 따른 자기통제의 추이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자기통제에 대한 사전, 사후, 추후 측정치 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고자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통제 사전-사후, 사전-추후 검정

집단별	사전	사후	추후	집단내 변화(t)	
	$M(SD)$	$M(SD)$	$M(SD)$	사전-사후	사전-추후
치료집단	66.00 (9.94)	62.50 (7.70)	62.13 (13.35)	2.52*	1.29
통제집단	60.75 (8.05)	64.38 (7.96)	63.63 (7.44)	-2.09	-1.23

* $p < .05$

치료집단의 자기통제 수준의 사전 측정치와 사후 측정치 간 차이가 유의미했으나($t=2.52, p<.05$), 통제집단의 자기통제 수준은 사전 측정치와 사후 측정치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자기통제 수준의 치료 효과를 의미한다. 프로그램 종결 4주 후 측정한 추후 측정치는 치료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자기통제력 증진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일시적 효과는 있었으나 치료의 지속 효과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V. 논의 및 제언

1.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6호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립(GRIP)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대상자의 대인관계문제와 우울의 감소 및 자아통제력 증진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치료집단은 총 10회기, 회기 당 100분씩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 척도, 우울 척도와 자기통제력 척도를 사용하여 치료 전, 치료 후, 치료 4주 후 자기보고식 검사를 실시하고 SPSS Win 18.0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립(GRIP)을 실시한 치료집단은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료집단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사후 측정치가 사전 측정치보다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t=2.94, p < .05$). 통제집단은 사전-사후 측정치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료의 지속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종결 4주 후 측정한 추후 측정치는 치료집단에서는 사전측정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통제 집단에서는 사전 측정치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치료 치료집단의 치료 지속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통제집단 측정치의 유의미한 증가에 비추어 지속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인관계 문제 변화 추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치료집단에서 사전-사후 측정치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치료의 단기 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하(2009)의 연구 결과와 일

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며, 치료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반대의 결과이다. 통제집단은 대인관계 문제 사전-추후 측정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고, 치료집단 또한 대인관계 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추후 측정치가 사전 측정치에 비해 경미하게 상승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후-추후 측정 시기 간에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에 공통적으로 처치 이외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의 관찰에 따르면 측정 당시 시설 내에 비행청소년 간 매우 심각한 다툼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툼과 관련된 당사자가 법원으로 송치 되었고,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또한 대인경계와 불신감이 증가하고 하위 집단을 형성하여 치료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폐쇄적인 환경에 갇혀 있는 실험참여자의 특성 때문에 처치와 상관없는 외부 자극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 그립(GRIP) 실시집단의 사전에 비해 추후 측정치가 유의미하게 대인관계 문제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제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인관계 문제의 증가를 보인 것은 집단치료에 의한 대인관계 문제 증가의 완화 작용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둘째, 그립(GRIP)을 실시한 치료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F(2, 28)=3.90, p<.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료집단에서 우울에 대한 사전 측정치에 비해 사후 측정치가 경미하게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 종결 4주 후 측정한 추후 측정치 또한 사전 측정치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제 집단은 사전 측정치와 사후 측정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사전 측정치와 추후 측정치 간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선행 연구 결과(석미란, 2011; 오지혜, 2011)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치

료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전-사후 측정치 간, 그리고 사전-추후 측정치 간에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에 비해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것은 치료 집단에서 평가시기에 따라 우울 수준이 경미하게 감소하며, 통제 집단에서는 이와 반대로 경미하게 상승하는 양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치료집단에서 평가 시기 간 측정치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평가 시기 간 차이 점수의 표준 편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의 관찰에 따르면 비행청소년 개인마다 입소 시기가 다르므로 환경에 적응하는 수준이 다양했다. 이 때문에 개인에 따라 프로그램에 몰입하는 정도가 달라서 프로그램 효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집단원이 있는 반면, 이를 장난스럽게 받아들이고, 노는 시간으로 간주하는 집단원도 있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집단원의 집단 참여 동기가 치료효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이선영, 2009) 본 연구에서도 집단원의 각기 다른 집단 참여 동기 수준이 프로그램 효과에 큰 편차를 일으켰음을 추측할 수 있다.

셋째, 그립(GRIP)을 실시한 치료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자기통제력 수준의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료집단에서 자기통제력 수준이 사전에 비해 사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 하였고($t=2.52$, $p<.05$), 통제 집단은 사전 측정치와 사후 측정치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료의 지속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추후 측정치 간에는 치료 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통제력 수준의 차이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료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사후-추후 측정치 간 자기통제력 수준이 경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치료 집단에서 자기통제력 증진의 단기 효과는 유의했으나 장기효과에서 유

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프로그램 설계 문제를 들 수 있겠다. 이를테면 본 연구에서 자기 통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프로그램 1회기에 집단 참여자에게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7회기와 마지막 10회기에 목표 달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이와 같이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실시한 그립(GRIP)이 비행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는 단기 효과가 있었고, 우울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외부 환경을 통제하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고, 프로그램 설계의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립(GRIP)을 활용한 비행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 및 자기 통제력 증진과 우울 감소의 효과를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 선정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 감호소에 수용된 여자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치료 연구를 실시하였다. 비행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연령대와 비행의 종류에 따라 치료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또한 입소시기에 따라 집단 참여 동기 수준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또한 치료효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를테면, 본 연구에서 그립(GRIP)에 참여한 비행청소년 8명의 연령대와 비행의 종류, 입소시기를 조사한 결과, 연령대의 경우 만 14세가 1명, 만 15세가 2명, 만 17세가 1명, 만 18세가 3명, 만 19세가 1명이었다. 죄질의 경우 특수절도 3명, 폭력 및 폭행 2명, 사문서부정행사 1명, 성매매 1명, 보호관찰위반 1명이었으며, 이 중 5명이 재범을 저질렀다. 또한 입소시기의 경우, 2개월 미만은 2명,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3명,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은 2명, 6개월 이상은 1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그룹(GRIP)에 참여한 인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 추측할 수 있다.

이외에 교육수준 및 이해력에 집단원 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룹(GRIP)에 참여한 인원들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했으며, 이혼 및 별거가정에 노출된 경우가 많아 교육 및 이해력 수준이 일반적인 또래집단에 비해 크게 저조하였다. 이는 집단 리더의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마음자세 카드’를 사용한 회기에서 집단원 중 일부는 카드에 적힌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프로그램 진행을 지연시킨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특징을 세분화하여 이를 토대로 비교적 동질적인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을 실시하는 것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비행청소년의 특징에서 나타난 문제를 들 수 있겠다. 실제 그룹(GRIP)을 진행하면서 집단원을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시설 내 비행청소년들이 자신을 ‘괜찮은 사람, 유쾌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무척 강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시작 전 이미 하위집단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개방을 위한 치료적 집단 분위기 형성에 어려움을 주었다. 그리고 비행청소년의 동기수준과 집중력이 매우 낮아 프로그램에 오래 집중하지 못했다. 또한 이들은 본 프로그램을 수업 이외의 특별한 ‘놀이’, ‘활동시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설 내 비행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의 자기 개방을 위한 라포 형성 기간을 좀 더 길게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Yalom(2005)은 집단 응집력 형성을 위해 초기

단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회기 진행 시간은 짧게 하되 이들의 변화 과정을 천천히 살펴볼 수 있도록 장기 프로그램 회기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프로그램 설계의 문제이다.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증진을 위해 개입한 시도들이 자기통제력의 지속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는 ‘마음자세카드’를 사용하여 집단 참여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카드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원이 있었으며, 이 접근을 1회기와 후반부에만 배치하여서 실제적인 자기통제력 증진의 효과를 크게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집단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매회기마다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세밀한 구조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선영(2009)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심리, 정신, 행동, 예술을 모두 포함하는 게슈탈트 집단 프로그램을 보다 더 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강미량 (2009). 분노조절을 위한 미술치료와 인지, 정서, 행동 치료가 비행 청소년의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신덕 (1997). 비행청소년 분노조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경찰청 (2013). 경찰범죄통계,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곽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및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김길청 (1998). 청소년 비행과 자아중심성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식, 이현철 (2008, 2007). 청소년 비행의 영향 요인, **교육사회학 연구**, 17(2), pp.1-22
- 김남성 (1991). **인지적 행동수정**, 서울교육과학사.
- 김남성 (1995). **교육심리학**. 서울교육과학사.
- 김동태 (2010). 비행성향 청소년들이 겪는 고통경험에 대한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명숙 (2004). 자기통제훈련이 학습부진아의 성취동기 향상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2012). 인지행동프로그램 미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소년원 수용생활에 미치는 효과.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경 (2010).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사례연구: P소년원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27-60.
- 김숙희 (2011). **비행청소년의 분노와 충동성 조절을 위한 게슈탈트관계성향 상 프로그램 효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점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pp.391-411.
- 김유진 (2011). **상위-기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정 (1999). **우울성향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자경 (2006). **의미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우울, 삶의 목적 및 비행충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김잔디 (2000).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명상포함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규 (1995, 2015). **게슈탈트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김정규 (2009). 게슈탈트 집단치료, 상담과 지도. 44, pp.175-197.
- 김정규 (2010).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 매뉴얼**. 서울: 게슈탈트 미디어.
- 김정남 (2010). **또래동조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보호 요인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광대경, 이동원 박철현(2013), **청소년 비행론**, 청목출판사. 서울.
- 김준호, 이동원 (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혜 (2007). **우울·공격성을 보이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요리활동 프**

로그래ムの 적용 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 (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현실 (1995). **폭력모체에 의한 비행행동의 구조모형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태 (2011). **집단상담 이론과 실제,** 동문사, p41.
- 김효림 (2014).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을 활용한 집단미술 치료가 중학생의 우울,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대구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숙, 박영태 (2009). **게슈탈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통제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2(2), 17-31
- 김희은 (2002). **집단미술치료가 소년원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 불안, 우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혜숙 (2006). **Gestalt 예술치료가 우울장애 환자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13(2), pp. 361-385.
- 노성호 (1994). **한국의 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안영 (2013). **게슈탈트 치료의 이해와 적용-접촉과 자각을 통한 경험적 치료.** 서울: 학지사.
- 류창현 (2010). **범죄소년을 위한 인지행동치료와 웃음 치료에 대한 효과성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경주 (2004). **청소년기 자율성 욕구와 부모 허용 간 불일치가 우울 및 이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갈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영숙 (2012). **비행청소년을 위한 자기통제력 강화프로그램 개발(소년원을**

- 대상으로 한 참여적 실행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수홍 (1996). 비행의 조기 예측 요인 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 민수홍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3(6): pp. 27-47.
- 민원홍 (2014).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2), pp. 265~290
- 민현정 (2003). **우울 성향 아동에 대한 게슈탈트 집단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애, 이재규, 권해수 (1998). 청소년 동반자살.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 박미경 (2012). **중학생의 또래 애착과 자기 통제력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박순진 (2005). 청소년 폭력 비행에 있어서 가해-피해의 연계. **피해자학연구**, 13(2), 241-269.
- 박영실 (2007). **청소년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자기 통제력과 기회 요인의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은경 (2012). **현실치료를 적용한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석미란 (2011).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이 우울성향 독거노인의 우울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혜정 (2013).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분노조절, 자아**

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송연 & 장현석. (2013). 연구논문: 부모의 자기통제력과 양육방식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통제력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7(2), 3-33.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 (2004), 비행청소년의 생활적응문제에서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합병효과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91-510.

심예랑 (2013).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혜원 (1999). **청소년기 반발심과 문제행동 및 우울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안권순 (2006).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행경험 및 관련 요인 비교**.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종국, 김충기 (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01-121.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 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양종국 (2000). **비행청소년들의 특성에 알맞은 인성검사 개발연구**. 법무부 보호국.

양종국, 지용근 (2002). 비행청소년의 개인 배경변인 및 위험요인,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한국의 청소년 효문화 학회** 3(0) PP. 349-381

오지혜 (2011).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이 우울성향 여자 중학생의 우울, 정서조절,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채영, 김판희 (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변인들 간의 다차원적 구조 분석. **청소년학연구**, 18(4), 219-240
- 우채영, 임재국 (2009). 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사, 또래와의 부정적 인간관계, 학교 폭력경험, 일탈 및 대처 행동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6(4), 145-166.
- 유성경 (1999). 청소년 탈비행화 조력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 (2000).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비행수준별, 유형별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옥문 (2011). **해결중심적 집단미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 영 (2009). **우울-비행 청소년의 역기능적 인지 도식, 비합리적 신념, 분노표현양식의 특성**.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혁기 (1999).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조절 집단 상담이 청소년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인지각 및 대인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은혁기 (2002). **또래상담훈련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문제, 대인도움 기술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심리학** 16(4). pp.41-59
- 이상하 (2009). **비행청소년을 위한 게슈탈트 집단치료의 효과 및 치료 요인: 공격성과대인관계능력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 (2009). **비행청소년에 대한 통합치료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대, 염동문 & 김서정. (2013).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5(2), 267-293.
- 이성식 (2010).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들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비행에의 영향 비교: 일반이론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21(1): 203-233.
- 이미경 (1995). **충동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정 (2003). **집단미술치료가 편모가족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과 우울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 학위논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 이영민 (2013). **인문학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희 (2007).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학업성취가 사회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16(1), 123-145
- 이정선 (2010). **인지행동치료 집단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감 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영 (2010). **초기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의 공존발달: 기질의 영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주영 (2000). **우울한 비행청소년 집단의 사회정보처리 특성: 비행집단과 우울집단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 (2009).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이 우울성향 여자중학생의 우울, 자기개념,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재 (2001). **소년비행의 예측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소영 (2000). **비행청소년을 위한 분노조절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은정 (2002). **독서요법 프로그램과 분노조절 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현 (2015). **청소년비행대책론**, 서울: 박영사, 2015.
- 장경혜 (2004) **도시 빈곤여성의 우울 감소를 위한 계슈탈트 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윤식 (1987). **대인문제해결능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44-74.
- 정경희 (2014). **미술치료를 통한 학대피해아동 그룹 홈 청소년 이해과정 탐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미술치료학 석사학위논문.
- 정혜승 (1995).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아통제성과 비행 기회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원, 박성훈 (2011). **낮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사회유대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범죄와 비행**, 189-207.
- 정혜원, 정동우 (201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 교사애착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청소년학연구**, 19(9), 1-23
- 조맹제, 김계희 (1993). **주요 우울증 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pp.381-399.
- 조주연, 김신영 (2010). **청소년 비행 결정요인 탐색: 자기통제력과 자기친구의**

- 주 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검증. **미래청소년학회지**, 7(1), 151-173.
- 지승희, 이은경 (2001). 청소년비행 예방 및 개입 전략 개발을 위한 종단 연구
I. 서울. **한국 청소년 상담원**.
- 진혜민,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pp. 193-221.
- 최선남 (1995). **아동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동적 가족화에 의한 우울판별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세아 (2015). **소년원 재소 청소년의 자아 상태와 인생태도 변화를 위한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옥채, 이정미 (2006). 청소년의 재비행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교정연구**, 33호
- 최임정, 심혜숙 (2009). 대학생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pp. 479-492.
- 최정희 (2010).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최진이 (2009). **심리극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우울, 공감, 희망에 미치는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개발원 (201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허경미 (2010). 사회적 발달이론 관점에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개선 방향. **소년보호 연구**, 15, 131-164.
- 허미경 (1995). **자기 성장 집단상담이 비행청소년의 불안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보호관찰 대상자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성희 (2008). 자기통제훈련이 초등학생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형 사정책 연구원.

Alexander, F. E., & French, T. M. E. (1948). *Studies in Psychosomatic medicine; an approach to the cause and treatment of vegetative disturbances.*

Cantwell, D. P., & Baker, L. (1991). Manifestations of depressive affect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121-133.

Conger, J. J., & Miller, W. C. (1966). *Personality, social class, and delinquency.* John Wiley & Sons.

Conger J. J. & Peterson A. (1984), *Adolescent and Youth,*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Essau, C. A., Conradt, J., & Petermann, F. (2000). Frequency, comorbidity, and psychosocial impairment of depressive disorders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4), 470-481.

Gottfredson, M.R. &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Kopp (1982). The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O'Donnell, J., Hawkins, J. D., Catalano, R. F., Abbott, R. D., & Day, L. E. (1995). Preventing school failure, drug use, and delinquency among low income children: long term intervention in elementary school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5*(1), 87-100.

Passons, W. R. (1975). *Gestalt approaches in counseling.*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Passons, W. R. (1995). *게슈탈트 카운슬링.* 우재현. 대구; 정암서원.

- Perls, F. S., Hefferline, R. E., & Goodman, P. (1951). *Gestalt Therapy. Excitement and Growth in the Human Personality*. New York: Delta.
- Peters, R.D., & Bernfeld, G. A. (1983). Reflection-impulsivity and social reas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1983, 19*, 78-81.
- Richard B. & Dodge K.A.(1982), Social maladjustment and problem solving in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82, 50*, 226-233.
- Violet Oaklander, (2006). *Windows to Our Children*. 김정규, 윤인, 이영이 공역, 서울: 학지사
- Yalom, I. D., & Leszcz, M. (2005).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최해림, 장성숙(역).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하나의학사.
- Yontef, G. M. (2008). *Awareness, Dialogue and Process: Essays on Gestalt therapy*. 김정규, 김영주, 심정아 공역, 서울; 학지사.(원전 1993)

ABSTRACT

The Effect of 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for delinquent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Depression and Self Control

Huh, Gy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effectiveness of 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for probationary juvenile delinquents and show that the program is helpful in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 control, and reducing depression. The subjects were 16 female juvenile delinquents on probation who were detained in a children preservarion facility. Eight of them were randomly divided into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each. During the experimentation period, the experimental group was treated with ten group therapy sessions by a trained therapist twice a week. Each session of the program lasted 100 minutes and using 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To measure the degree of depression, a Korean version of short form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CES-D) were used and the self control scale was applied to assess self control ability.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KIIP Circumplex scales (KIIP-SC) were also used to ass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ose who received the 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made significant improvement in interpersonal skills and self control. Also it made depression reduction.

In conclusion, the study showed that 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can be helpful to delinquent adolescents with interpersonal problems, self control and depress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psychotherapy practice.

Key words : 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Interpersonal problems, delinquent adolescent, self control, depression

부 록

부록 1. 연구 참여 설명서, 동의서

부록 2. 설문지

연구 참여 설명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는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신 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여러분은 설문 조사와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는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2~3회 실시합니다. 실험 집단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5주간, 주 2회씩, 1회 90분간 진행됩니다. 집단 상담은 녹음이 될 것입니다. 녹음된 내용은 본 연구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가명으로 처리되고, 연구가 끝나면 모두 폐기될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될 인적사항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항은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연구 참여 중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강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연구의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5년간 잠금장치에 보관되며 이후 파쇄 및 삭제 조치를 통해 폐기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시 연구 담당자 및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지도교수 및 연구책임자 : 김정규

연구담당자 : 허경 010-0000-0000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02-920-0000

동의서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었으며, 연구 참여 시 나의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 나는 연구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 연구자로부터 만족할만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 또는 보건 당국·학교 당국에서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든지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 서명 : 서명일: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 서명일:

(필요시) 연구대상자와의 관계:

※ 성명과 서명은 오직 동의서 작성을 위해서만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작성하신 정보는 본 연구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 질문지는 청소년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검사들로 게슈탈트 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시험 문제처럼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통계 처리될 것이며 연구 목적으로만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질문지 작성을 도와주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정규 / 연구자 허 경



1. 나는 대체로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표 하세요.

	문항	전혀 아니 다	대체 로 아니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2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1	2	3	4	5
3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요구라도 하기 어렵다	1	2	3	4	5
4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다	1	2	3	4	5
5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6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진심으로 걱정해주기가 어렵다	1	2	3	4	5
7	다른 사람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가 어렵다	1	2	3	4	5
8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1	2	3	4	5
9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1	2	3	4	5
10	다른 사람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기 어렵다	1	2	3	4	5
11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12	다른 사람들을 너무 어려워한다	1	2	3	4	5
13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해 주기 어렵다	1	2	3	4	5
14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내 주장을 내세우기 어렵다	1	2	3	4	5
15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나 애정을 표현하기 어렵다	1	2	3	4	5
16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당하지 못하다	1	2	3	4	5

17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피한다	1	2	3	4	5
18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1	2	3	4	5
19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있을 때가 많다	1	2	3	4	5
20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잘 믿는다	1	2	3	4	5

	문항	전혀 아니 다	대체 로 아니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21	내 주장만 너무 내세울 때가 많다	1	2	3	4	5
22	누가 나에게 의지할 때 받아주기 싫다	1	2	3	4	5
23	너무 잘 속는 편이다	1	2	3	4	5
24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1	2	3	4	5
25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	1	2	3	4	5
26	너무 존경받고 싶어 한다	1	2	3	4	5
27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자주 조종하거나 이용한다	1	2	3	4	5
28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참견하고 싶어 진다	1	2	3	4	5
29	친한 사람에게 너무 매달린다	1	2	3	4	5
30	의견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	1	2	3	4	5
31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1	2	3	4	5

32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면 도와주려고 너무 나선다	1	2	3	4	5
33	다른 사람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 한다	1	2	3	4	5
34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따른다	1	2	3	4	5
35	늘 주목받고 싶어한다	1	2	3	4	5
36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긴장한다	1	2	3	4	5
37	뚜렷한 주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끌려 다닌다	1	2	3	4	5
38	다른 사람의 험담을 너무 많이 한다	1	2	3	4	5
39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이용당한다	1	2	3	4	5
40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이라고 자책할 때가 많다	1	2	3	4	5

2.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의 당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해당란에 ○ 표 해주십시오.

	문항	극히 드물다 (1일이 하)	가끔 있었다 (1~2일)	종종 있었다 (3~4일)	대부분 그랬다 (5일이 상)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1	2	3	4
2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었다	1	2	3	4
3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다	1	2	3	4
4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1	2	3	4
5	비교적 잘 지냈다.	1	2	3	4

6	상당히 우울했다.	1	2	3	4
7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1	2	3	4
8	앞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1	2	3	4
9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10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1	2	3	4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1	2	3	4
12	두려움을 느꼈다	1	2	3	4
13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다	1	2	3	4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	2	3	4
15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1	2	3	4
16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	2	3	4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1	2	3	4
18	마음이 슬펐다	1	2	3	4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	2	3	4
20	도무지 뭘 해 나갈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1	2	3	4

3. 다음은 평소 생활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생활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O 표 해 주세요.

	문항	전혀 아니 다	대 체 로 아 니 다	약 간 아 니 다	약 간 그 렇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정해진 규칙이나 지시를 잘 따른다.	1	2	3	4	5	6
2	나는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있어야 할 때 차분히 있을 수 있다.	1	2	3	4	5	6
3	나는 다른 친구들이 하는 놀이나 활동에 불쑥 끼어들어 참견하거나 방해한다.	1	2	3	4	5	6
4	나는 수업시간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잘 집중한다.	1	2	3	4	5	6
5	나는 친구들이 수업시간에 발표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순서 없이 끼어든다.	1	2	3	4	5	6
6	나는 급하게 일을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한다.	1	2	3	4	5	6
7	나는 하고 싶은 일이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즉시 하거나 가지려 한다.	1	2	3	4	5	6
8	나는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한다.	1	2	3	4	5	6
9	나는 친구들과 공동작업을 오래하지 못한다.	1	2	3	4	5	6
10	나는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일이라도 끝날 때까지 그 일에 집중한다.	1	2	3	4	5	6
11	나는 기쁜 일로 흥분했을 때나 꾸지람을 들어 감정이 상했을 때 감정을 자제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12	나는 주어진 과제가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6
13	나는 생각이 깊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14	나는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15	나는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이라도 나중에 손해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다.	1	2	3	4	5	6

16	나는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일이라도 내게 이익이 되면 한다.	1	2	3	4	5	6
17	나는 하고 싶은 말은 참을 수가 없다.	1	2	3	4	5	6
18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열을 내지만 곧 하기 싫어진다.	1	2	3	4	5	6
19	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한다.	1	2	3	4	5	6
20	나는 스릴과 모험보다는 안전을 우선한다.	1	2	3	4	5	6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